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4~1/20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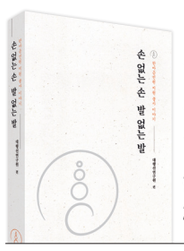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말 관세음보살 보문품 필사집	편집부	담앤북스
2	무비스님의 신심명 강의	무비	조계종출판사
3	법구경 마음공부	정운	유노북스
4	참선 수행자를 죽비로 후려치다(박산무이스님의 참선경어)	원택	장경각
5	금강경 선물(컬러링북)	박혜상	불교신문사
6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위원회	조계종출판사
7	고광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8	초역 부처의 말 필사집	편집부	포레스트북스
9	어른이 되는 흐름의 기술	마가	불광출판사
10	인과경	지묵	우리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이유없는 정성 이유없는 기쁨	월인	히어나우시스템
3	초기불교 입문	각묵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4	맛지마니까야(1)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5	마하시사야도의마하사띠빳타나숫따대역	일창 담마간다 옮김	불방일
6	망설일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도법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7	이와같이 살았으면	여천 무비 풀어씀	염화실
8	불교와에 크리튀르	시모다 마사히로	운주사
9	붓다의 가르침	월폴라 라훌라	맑은소리맑은나라
10	불멸(3)	이각	지혜의눈

한마음선원 지원 불사 면면을 담아내다



한마음선원 불사 이야기
손 없는 손 발 없는 발
한마음선원 출판부
2만5000원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서 소개된 7개 지원 불사 기록
지역 스님·신도 원력 뒷받침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불사 이야기: 손 없는 손 발 없는 발〉은 전국 한마음선원 15개 지원 중 7개 지원의 개원과 불사 과정이 담겨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열린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의 도량탑 제막식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난 이런 불사가 참 좋아. 이게 진짜 불사야. 저 벽돌 하나 모래 하나하나가 다 신도님들의 피눈물이 아니니? 어느 누가 돈이 많아서 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신도들의 눈물 어린 불사가 진짜 불사이고 정말 좋아."

1987년 6월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이 개원하고 신도들의 정성으로 법당을 마련한 1989년 9월, 준공법회를 마친 대행 선사(1927~2012)가 제주지원 동산에 올라 준공된 법당을 바라보며 한 말이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이 한마음선원 지원의 개원과 불사 과정을 담은 〈한마음선원 불사 이야기: 손 없는 손 발 없는 발〉을 출간했다. 책에는 전국 한마음선원 15개 지원 중 7개 지원의 개원과 불사 과정이 담겨 있다.

대행선연구원은 2016년 개원 이래 1년에 4회 계절발표회라는 이름의 학술발표회를 진행해 지난해 12월까지 25회에 이르렀다. 2023년 3월 제14회 계절발표회부터는 '지원소개'의 자리를 마련해 진주지원(지원장 혜근 스님)을 시작으로 지원장 스님이 직접 개원과 불사 과정을 대중들에게 전했다. 이후 7월 제15회 울산지원(지원장 혜안 스님), 12월 제17회 통영지원(지원장 혜연 스님), 2024년 3월 제18회 제주지원(지원장 혜묘 스님), 7월 제19회 강릉지원(지원장 혜인 스님), 9월 제20회 대구지원(지원장 혜공 스님), 12월 제21회 포항지원(지원장 혜문 스님), 2025년 3월 제22회 중부경남지원(지원장 혜춘 스님)까지 총 8개 지원이 소개됐다.

〈한마음선원 불사 이야기〉에는 연구원 계절발표회를 통해 소개된 8개 지원 가운데 7개 지원의 개원과 불사 과정이 담겼다.

대행선연구원은 "한마음선원의 지원은 안양본원에 다니던 지역 신도들이 지역에서도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모아 자발적으로 시작됐고, 본원이나 다른 지원의 힘을 빌지 않고 오직 그 지역 신도들의 원력으로 개원했다"면서 "그러므로 지원이 개원하고 불사를 하는 데에 각 지원 스님들과 신도들이 큰 어려움과 역경을 겪었다. 이 책에는 그렇게 손 없는 손과 발 없는 발로 이루어진 지원 불사의 노력들이 사진과 함께 생생하게 담겨 있다"고 전했다.

천진불 미소 담은 명상시



맑은 날
김남희 지음
이지선 그림
운주사
1만2000원

수행하는 시인의 두 번째 동시집
어린이 눈높이로 본 명상의 세계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으며 씨익 웃어 봅니다 / 거울 속의 나도 똑같이 웃습니다 // 찡그릴 때도 웃을 때도 말없이 비춰 주는 거울 / 거울에는 아무런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 환할 때 더욱 빛이 나는 거울 / 모든 것을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거울' 중에서

서울 봉은사 봉은선원에서 참선 수행을 이어오고 있는 김남희 시인이 어린이들의 동심과 명상을 주제로 동시집을 펴냈다. 시인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업 스트레스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따뜻한 사랑, 친구와의 놀이와 즐거운 학교생활,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자연과의 교감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다치고 힘든 마음을 다스려 줄 수 있는 명상과의 만남이 바른 성장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눈이 가늘게 / 떠집니다 // 입꼬리가 / 올라갑니다 // 마음속에 / 동심원이 // 연꽃처럼 피어납니다."
–'미소' 전문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함과 순수, 소소한 일상과 바람,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동시들은 어른들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보듬어 준다. 이지선 작가의 삽화도 독자를 동심으로 이끈다.

각산 스님(한국명상총협회장)은 "사유의 깊이를 지닌 시인은 어린이의 마음과 눈높이로 명료한 명상의 세계를 열어 보이고자 한다"며 "〈맑은 날〉에서 내면에 깃들어 있는 동심과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다"고 추천사를 남겼다.

시인은 현재 한국창작문학인협회 부회장, 한국불교아동문학회 이사, 참선단체 수선회 회장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생과 사의 동시성을 응시하다



흰 연꽃의 눈
맹난자 지음
도서출판 북인
1만8000원



한국 수필계의 원로 맹난자 작가가 4년 만의 신작 에세이를 펴냈다.

원로 수필가의 4년만 신작
사유와 침묵의 내면 기록

한국 수필계의 원로 맹난자 작가가 4년 만에 신작 수필집 〈흰 연꽃의 눈〉을 펴냈다. "양피지 위에 썼다가 지운, 그리고 다시 눌러쓴 글자들"이라는 고백처럼, 이번 책은 삶의 흔적 위에 덧씌워진 사유와 침묵의 결을 따라가는 내면의 기록이다. "결국은 무(無)에 이르는 도정이었다"는 그의 말은, 수행자의 고백처럼 담담하고도 단정하게 책의 전반을 관통한다.

표제작 '흰 연꽃의 눈'에서 작가는 노쇠와 질병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되었음을 담담히 응시한다. 봄을 만개시킨 목련 앞에서 "이 몸도 낙화(落花)하는 일"을 말하면서도, 〈연화경〉의 화과동시(花果同時) 사상처럼 생과 사의 동시성을 투명하게 응시한다.

생(生)의 찰나마다 이미 죽음이 스며 있고, 사(死)의 이면에는 다시 생이 움튼다는 깨달음은, 그의 필명 '관여(觀如)'가 지향해 온 '있는 그대로 봄'의 태도를 잘 드러낸다. 흰 연꽃의 이슬방울에서 생사즉(生死卽)의 실상을 본다는 고백은, 오랜 침잠 끝에 얻은 수행자의 통찰에 가깝다.

책은 총 5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에서는 "글쓰기는 하나의 깨달음"이라는 선언처럼, 글쓰기를 수행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작가의 태도가 드러난다. '마음 밖에 법이 없다'에서 그는 마조 스님의 가르침을 빌려 분별과 간택을 내려놓을 것을 다짐하며, 글쓰기를 통해 마음을 비추는 길을 모색한다. 글은 일기나 기록을 넘어 자기성찰의 장이자 사유의 안식처로 자리한다.

제2부에서는 아름다움과 행복, 이름 등 일상의 개념을 다시 묻는다.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 오히려 찬란한 존엄을 발견하는 '아름다움, 그 비의어를 생각하다', 오온이 빚어낸 판타지로서의 '행복'을 성찰하는 '행복에 대하여' 등에서, 작가는 집착을 비워 내는 불교적 통찰과 문학적 언어를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이름조차 물 위에 새겨 흘려보내겠다는 고백은 무주(無住)의 삶을 향한 그의 지향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제3부와 제5부는 수필과 작가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다. 수필의 정체성과 연원을 따지는 글들은, 장르 논의를 넘어 '글이 곧 사람'이라는 수필의 본질을 다시 일깨운다.

제4부 '죽음을 그리다'는 책의 정조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법정 스님으로부터 "가난이 우리를 이만큼 키웠습니다"라는 글귀를 받고 평생 간직해 왔다는 이야기는, 무소유의 삶에 대한 동경과 실천의 흔적을 보여 준다. 책을 버리며 존재의 덧없음을 체감하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한 학자들의 삶을 돌아보며 '선종(善終)'의 의미를 되새기는 대목이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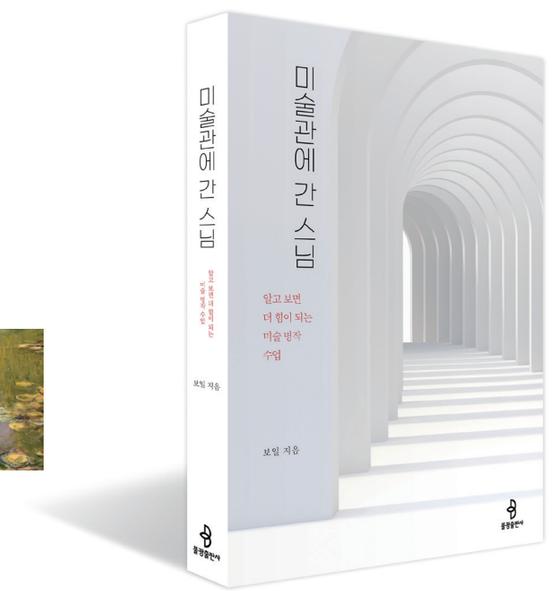
"허수입(虛受入), 바람 따라 갈란다." 작가의 말처럼, 집착을 풀고 무(無)를 향해 걸어가는 원로 수필가의 뒷모습은 삶과 죽음을 동시에 직면하도록 이끈다. 여수령 기자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림이 있나요?"

서울대 철학박사 보일 스님의
내 삶을 위로하는 명작(名作) 읽기!

34명 예술가의 삶과 작품으로
배우는 인생의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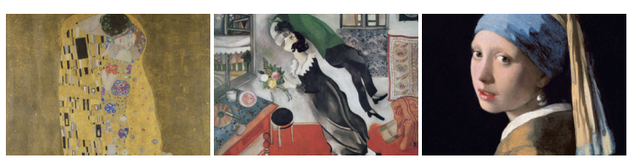




미술관에 간 스님
알고 보면 더 힘이 되는 미술 명작 수업
보일 지음 | 360쪽 | 20,000원 | 불광출판사

"예술은 고통을 다루는 가장 다정한 방식이다"

고통 속에서 해방의 길을 찾아낸 대가들의 기록,
불후의 명작을 불교적 사유와 통찰로 재해석하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